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호 【루계 제24798호】 주체104(2015)년 1월 20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평천구역 안산2동 13인민반 리영희, 동대원구역 문신2동 13인민반 박정순은 오랜 기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찾아 고결한 충정을 바쳐가고있다.

광복지구상업중심 부원 김경숙, 옥류관 로동자 최인전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수대언덕에 올라 동상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평양기관차대 기관조사리영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고있다.

조선대양총회사 부원 박혁은 청년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는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옥류관 로동자 조선숙도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한 강동청흥탄광 로동자 김혜정, 덕천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한영순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건설자들의 생활에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크나큰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태양의 위업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김정일**령도자 탄생 73돐경축 나이제리아전국준비위원회가 9일 아부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 하원 의장 아군와 아나에크웨가, 서기장으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장군 탄생 73돐경축 베닌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9일 꼬또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닌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쑤 꼬호비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사회주의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는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신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악랄한 비난과 함께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렸다.

이러한 시기 **김정일**장군께서는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였다.

또한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김정일장군에 의하여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가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보루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였다.

베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인 꼬또누기자대학 학장 빠스깔 준체메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를 단호히 짓부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와 같은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명실공히 인민의 념원이 현실로 꽃펴나는 리상사회가 펼쳐지게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헤쑤 꼬호비가, 서기장으로 빠스깔 준체메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73돐경축 베닌사회주의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0일 꼬또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닌사회주의당 지도부 성원들과 당원들이 참가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신 **김정일**대원수님과 같으신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장장 반세기동안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면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알리 후두가, 서기장으로 아그바훈죠 쥬스땡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여러가지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19차 김정일화축전이 진행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9차 **김정일**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

주체104(2015)년 2월 중순부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개막되는 이번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지방들에서도 불멸의 꽃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참관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혁명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불패성을 확증하시고 우리 조국을 **김일성**조선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선군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굽이치는 위인칭송의 꽃축전, 영생축원의 대정치축전으로 된다.

제19차 **김정일**화축전은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자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일군들과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새해벽두부터 도안의 화학공업부문과 석탄공업, 경공업, 건설, 농업부문을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 탄광, 농촌들에서 생산과 건설, 농사차비에서 련일 성과가 이룩되고 전투적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의 호소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을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도안의 들끓는 전투장들로 내보내기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아래에 내려갈 사상적준비부터 빈틈없이 갖추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떳떳이 들어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중요공장, 기업소, 탄광, 농촌들에 나가 강연회, 해설담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깊이 되새겨주고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일군들과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일군들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금야청년탄광, 협동농장들에 나가 올해에 달성해야 할 전투목표와 수행방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워주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는데 힘을 넣고있다. 김규빈, 양호순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은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공세적으로 들이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새해 첫날부터 당보와 도일보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이 해당 지역, 단위들에 제때에 전달될수 있게 현지들에 나가 배포사업을 기동성있게 조직하였다. 그리고 도급기관들과 시, 군, 구역, 공장, 기업소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학습을 심화시키고 기동예술선동대활동과 방송선전차활동, 속보발간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 일터마다에 총공격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도혁명사적관,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 도미술창작사, 도작가동맹위원회, 도, 시, 군계급교양관의 일군, 창작가, 예술인, 강사들이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금야청년탄광, 함주군 동봉, 조양협동농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탄광, 농장들에 나가 경제선동과 현지창작활동, 이동강의를 참신하게 벌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도의 작가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금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대중을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 여러 부서의 일군들은 화학, 석탄, 경공업, 농업, 수산, 과학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과학자들이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고무추동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시, 군들과 중요공장, 기업소, 탄광, 농촌, 어촌들에 나간 도당위원회 해당부서 일군들은 그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생산과 기술개건,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경공업공장들에서 전기를 적게 쓰면서 생산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며 농산과 축산, 수산을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놓고 해당 단위 일군, 과학자, 기술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을 비롯한 중요공장, 탄광, 기업소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을 불러일으켜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새해벽두에 강철전선과 농업전선에 많은 파철과 거름을 보내준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인민보안국, 도체신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함흥시와 단천시, 북청군을 비롯한 도의 시, 군들에서는 대중을 적극 발동하여 금속공업과 농촌지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11만여t의 석탄을 더 보내주었다

석탄공업부문의 화력탄보장탄광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한마음을 안고 각지의 탄부들이 산악같이 떨쳐나 화력탄보장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9일현재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1만여t의 석탄을 화력발전소들에 더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새해에 들어와 내각의 지휘밑에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탄광들에 보다 질좋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예비를 적극 탐구해냄으로써 새해전투의 총돌격전을 벌리는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을 고무해주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화력탄보장성과가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충정의 마음을 안고 2.8직동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정초부터 지난해 12월에 비할바없이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천성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뚜렷한 화력탄보장성과를 기록하고 령대탄광에서도 계속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북창의 대동력기지석탄보장에서 많은 몫을 담당하고있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보내주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하여 지하막장들에 전투지휘소를 정하고 탄부들을 증산돌격전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그리하여 덕성탄광, 형봉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 혁신이 일고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 회안탄광, 인포탄광에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할바없이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화력발전소로 보내주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과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화력탄보장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히 조양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긴장한 화력탄보장전투를 벌리면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운반능력을 부쩍 높임으로써 석탄공업부문적인 화력탄보장실적에서 맨 앞장에 섰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흑령탄광 일군들과 탄부들도 화력탄보장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북부지구의 탄전들에서도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득장탄광기계공장, 덕천탄광기계공장, 순천탄광기계공장,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 송남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해전투가 시작되여 15일동안에 많은 량의 탄차와 탄광설비부속품들 그리고 소공구를 보다 질좋게 생산하여 화력탄보장탄광들에 보내주었다.

석탄공업부문 화력탄보장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더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로력적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학생교복생산 적극 추진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서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아래 피복공장들에서 새해에 들어와 교복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차례지게 될 새로운 형태의 교복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17일현재 사동피복공장, 서성피복공장, 강동피복공장, 삼석옷공장에서 1월 교복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일군들은 새해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있게 조직하였다.

특히 여러대의 화물자동차들을 마련하여 분산되여있는 피복공장들에 대한 자재를 신속정확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긴장한 전력조건에 맞게 자체의 발동발전기를 리용하여 생산을 중단없이 밀고나갈수 있는 대책도 세워놓았다.

당이 맡겨준 과업을 제기일안에 훌륭히 수행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갈 기상이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된 날부터 각 피복공장들에서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평양피복공장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지구들과 이동재단기, 로라프레스를 비롯한 중요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보통강피복공장을 비롯한 관리국아래 모든 피복공장들에서도 사회주의경쟁의 불을 걸고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일정계획을 앞당겨나가고있다.

제품마다에 정성을 쏟아부으며 한벌한벌의 교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생산하려는 열의 또한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몸소 교복견본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생산과 관련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닿게 할 일념을 안고 모든 피복공장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피복가공에서의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가고있다.

형제산피복공장, 보통강피복공장, 사동피복공장의 생산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새옷을 해입히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제품마다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안고 피복공장들에 달려나와 실밥뜯기, 단추달기 등의 작업을 도와주는 시안의 녀맹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은 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학생교복생산자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생산적앙양을 일으켜가고있는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의 교복생산성과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다.

전혁철

정 론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리라!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조선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2015년이다.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당을 따라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자욱우에 어느덧 70성상의 년륜이 아로새겨지는 우리의 2015년,

피눈물의 12월을 넘어 기적과 비약의 3년세월을 폭풍쳐달려온 천만군민이 새로운 신심과 용맹에 넘쳐 최후승리의 진군길을 더욱 억세게 다그칠 우리의 2015년이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이 전투적구호가 온 나라의 초소와 일터마다 기적의 불, 위훈의 불을 치솟군다.

당을 따라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당을 따라 또다시 걸어갈 승리의 한길을 신심드높이 내다보는 천만의 심장은 지금 무엇으로 고동치는가.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리라!

이것이 선군조선의 2015년에 나래치는 숨결이고 의지이다.

승리는 대를 이어!

이 남다른 자부와 긍지가 오선지우의 악보로가 아니라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속에 눈부신 현실로, 찬란한 미래로 억세게 살아 불길치는 내 나라의 2015년이다.

뜻깊은 새해 주체104(2015)년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당과 조국의 지난 70년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습니다.》

새해, 그 말은 희망이라는 뜻을 안고 온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새해의 력서를 펼친다.

드넓은 하늘아래 다같이 맞이한 2015년이건만 그 하늘아래 선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표정은 각이하다.

올해도 우리 수도 평양의 밤하늘가에는 1월 1일 0시 축포가 올랐다. 하늘땅을 휩싸안으며 신년경축의 밤하늘가를 물들인 우리의 축포,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하늘가에도 올랐을 축포였지만 내 조국의 밤하늘가를 물들인 축포는 그 의미가 류달랐다.

승리의 불보라였다.

조국해방 70돐과 당창건 70돐,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이 위대한 년륜을 승리자의 대경사로 빛내일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충천한 화광이 되고 우렁찬 뢰성이 되여 울린 경축의 불보라였다.

그에 화답하듯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새해벽두부터 위훈창조의 포성이 요란하게 울린다.

지난 1일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 터져오른 10만산대발파의 포성도 좋고 지난 3일 나라의 북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높이 울린 30만산대발파의 거세찬 뢰성도 좋다.

수천척 지하막장의 탄부들이 새해 첫 3일동안에 이룩한 2만 수천t의 석탄증산성과도 흐뭇하고 우리의 미더운 수송전사들이 새해 첫날에 철도성적인 수송계획을 101.2%로 수행하였다는 위훈의 소식도 자랑차다.

나라의 한끝에서도 들려오는 혁신의 메아리이다. 3월5일청년광산의 로동계급이 지난 1월 1일 0시 자기들의 피땀으로 안아올린 광물생산기지에 만부하의 시동을 걸고 첫 광물을 뽑았다는 그 소식 얼마나 장쾌한가.

젊음으로 약동하는 대지에 인민의 사기 또한 충천하다.

어디든지 좋지만 먼저 마식령에 오르시라. 천하제일절경이 예서 보인다. 하늘땅을 물들이는 대화봉의 해돋이도 장관이지만 선남선녀가 된듯 하늘끝에 닿은 주로를 따라 살갈이 지쳐내리는 복받은 인민의 모습은 어머니당이 안아올린 인민의 행복의 높이,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온 세상에 전하는 뜻깊은 화폭이다.

겨울철야영이라는 새로운 말을 외우며 앞을 다투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흰눈덮인 산천들을 누비는 야영렬차의 기적소리는 또 얼마나 좋은가.

새해의 첫 진군길을 다그치는 인민의 마음에는 신심이 넘치고 더 높이 세운 목표를 향해 신들메를 조이는 혁신자들의 가슴에도 위훈창조의 열망 뜨겁다.

어디에 뿌리를 둔 신심인가. 과연 무엇이 안겨주는 배심이고 락관인가.

각국의 신문, 통신들은 지금 증산의 기세드높은 우리 경제의 숨결을 앞을 다투어 전하고있다. 얼마전 한 외신은 《증산의 기세드높은 조선의 인민경제 선행부문》이라는 제목아래 증산투쟁의 열풍 몰아치는 각지 화력발전소들과 탄광들, 금속공업부문들의 투쟁성과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무엇때문인가. 단순한 생산수자가 아니기때문이다.

위대한 당을 따르는 조선의 숨결, 앙양의 기상이 고패치는 2015년의 첫걸음이기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의 충천한 기상에는 원천이 있고 뿌리가 있다.

조국강산이 해솟는 바다마냥 설레인다.

새해의 첫 기슭에서부터 누구나, 어디서나 꽃피우는 이야기가 있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치시여 신년사를 하시던 우리 원수님,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그리도 명쾌하게, 그처럼 확신에 넘쳐 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강렬한 매혹과 충격,

날과 날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은 가셔질줄 모른다.

해빛같은 그 영상 우러르며, 자애로운 그 음성 가슴에 새기며 온 나라의 초소와 일터, 집집의 창가마다 세차게 일어번졌던 환희와 격정의 파도 오늘도 조국강산에 력력히 고동친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는 승리한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활화산같이 터져오른 이 격정과 환희의 분출은 1월의 조국강산을 휩싸안는 거대한 불길이다. 달려야 할 승리의 천만리길에 천만의 대오를 더욱 굳게 묶어세워주는 승리의 기치이다.

승리에로의 길은 승리의 신심을 가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승리를 굳게 믿는 마음이 없이 혁명의 먼길을 굴함없이 끝까지 갈수 없다.

백전백승의 향도자 조선로동당을 따르는 길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

조선은 이 신념으로 굳건하고 이 락관으로 기세차다.

얼마나 하많은 추억과 긍지를 안고 밝아온 우리의 새해인가.

조국해방 70돐과 당창건 70돐,

한 나라, 한 인민의 력사에 이처럼 의미깊은 년륜은 없을것이다.

력사는 어제를 통해 래일을 비쳐주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당을 따라 걸어온 영광의 길을 뒤돌아보는 우리의 심장은 하나의 의지로 고동친다.

백전백승의 향도자!

이것이 당을 따라 걸어온 장장 70성상의 성스러운 자욱을 삼가 더듬는 인민의 마음속에 불덩이같이 터져오르는 소중한 부름이다.

올해는 세계가 70년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파시즘을 반대하는 전세계 민주력량의 승리로 끝나고 사회주의기운이 봄물마냥 굽이치는 속에 지구상 곳곳에 근로인민이 주인이 된 새세상, 새 나라들이 일떠서던 때로부터 70년,

오늘의 이 세상에서 자기의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할수 있는 나라와 민족은 얼마나 되는가. 무수한 사변들이 굽이쳐간 70번째의 하늘아래 《우리는 승리자》라고 떳떳이 설수 있는 민족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사회주의붉은기는 다같이 들었지만 한번 정한 길, 한번 들어선 혁명의 길에서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0성상이 력사의 각광을 받는다.

한 나라, 한 인민의 승리만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인류사적사변이다.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하였다고 떠이른 쾌재를 올리던 원쑤들의 면전에 사회주의는 진리이며 과학이라는 철리를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장장 70성상의 백전백승의 력사로써 선언하게 되는 우리의 긍지와 자부는 하늘에 닿는다.

어느 하루, 한시도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을 멈춘적 없는 원쑤들이 내 나라의 하늘가에 나붓기는 우리 당기발을 공포에 질려 바라본다.

우리 신념의 붉은기, 사회주의붉은기를 내리워보려고 그처럼 끈질기게, 그리도 악랄하게 발악하였건만 끝끝내 내리우지 못한 혁명의 붉은기, 백전백승의 기치를 바라보며 원쑤들은 전률한다.

우리의 이 격정, 이 환희에는 세상에 대고 목청껏 터치고싶은 남다른 긍지가 있고 자부가 있다.

승리의 대!

이것이다.

걸어온 승리의 길도 긍지스럽지만 경애하는 원수님 진두에 모시고 또다시 걸어갈 백승의 길, 세상에 하나뿐인 조선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승리는 대를 이어야 한다. 어제는 승리자였다 하여도 오늘의 승리가 없다면 그것은 추억이지 승리가 아니다. 오늘의 승리가 있다 해도 래일의 승리를 담보할수 없다면 그처럼 아쉬운것은 없다.

바란다고 하여 쉽게 지닐수 없는것이 백승의 전통이다. 금은보화를 다 팔아도 바꿀수 없는 승리의 전통은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나라와 인민만이 빛내일수 있는 남다른 행운이며 특전이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

우리의 이 긍지, 이 영광 어디에 비길것인가.

젊음에 넘치신 모습으로 개선광장의 연단에 오르시여 새 나라 건설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우리 수령님을 뵈옵던 때처럼, 노을이 피여나는 이른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라고 노래부르며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뜨겁게 설레이던 그 나날처럼 조국강산은 희열에 넘치고 희망으로 약동한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인가. 얼마나 가슴벅찬 우리의 희열인가.

어리석게도 《기다리는 전략》을 운운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대가 끊기우기를 바라던 원쑤들이 힘과 젊음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위용앞에 눈깔이 뒤집혀 앙앙불락한다. 또다시 세기를 이어 계속될 백승의 력사,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승리의 법칙앞에 혼비백산하여 뒤걸음치는 원쑤들의 몰골이 보이고 놈들의 아성에 울리는 비명이 들린다.

대세가 바뀌고 력사의 흐름이 결정되였다.

이제는 우리가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확신하며 기다리게 되였다.

우리가 기다리는것은 승리이고 놈들에게 차례질것은 종국적파멸이다.

원쑤들이 벌리는 《인권》소동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한 비참한 몸부림이다. 멸망의 나락에서 헤여나보려는 필사적인 발악이다.

새해벽두부터 《압박》과 《제재》에 열을 올리는 놈들의 책동은 자기들의 패배를 절감하는자들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보라, 놈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 신념의 성새는 더 굳건히 솟고 우리 단결의 뉴대는 강철의 혈맥으로 더 굳건히 이어진다.

놈들은 알아야 한다. 무엇때문에 그처럼 수십년을 사상최대의 압박과 공세의 광풍을 미친듯이 몰아왔어도 당을 따르는 우리 신념의 항로는 추호의 변침도 모르는가를.

또 하나의 화폭이 그 대답을 안고 새해의 첫 기슭에 새겨졌다.

2015년 1월 1일, 세계가 말없이 조선을 주시하였다.

조국해방 70돐, 당창건 70돐을 맞는 사변적인 해에 조선의 첫걸음은 어디에로 향할것인가.

그 대답을 세계가 들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

2015년 1월 1일의 하늘가에 울려가던 우리 원수님의 그 음성, 《아버지원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원수님 품에 사품치듯 달려가 안기는 원아들의 모습은 조선로동당의 70성상의 년륜이 무엇으로 억세고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뜨겁고 줄기찬것인가를 력사에 선언하는 또 하나의 감명깊은 화폭이였다.

친아버지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자식들마냥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원아들에게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원아들이 목청껏 부른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울리는 그 노래처럼 우리 당이 걸어온 70년에 대하여, 또다시 걸어갈 70년, 700년의 길에 대하여 우렁차게 선언하는 로동당찬가는 없을것이다.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자기의 붉은 기폭에 조국과 인민을 감싸안아 세기의 영웅, 백전백승의 주인공으로 키워준 조선로동당이 창건 70돐을 맞는다.

어머니당창건 70돐이 되는 올해에 로동당복, 인민의 만복이 더욱 넘치게 할 불타는 꿈과 리상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신 2015년의 휘황한 설계도가 우리를 부른다.

달려야 할 앞길이 명백하고 가닿아야 할 승리의 광장이 뚜렷하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피끓는 심장의 호소는 진격의 대오에 울리는 신념의 박동이며 승리의 기치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이 정신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고 안아오지 못할 기적이 없다.

이 정신이 우리의 심장에 불길치는 한 이루지 못할 승리가 없고 꽃피우지 못할 만복이란 없다.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 우리는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 …

백두산에 오르시여 지동치듯 몰아치는 칼바람을 기꺼이 맞으시며 우리 원수님 하신 그 말씀,

그렇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이긴 항일혁명선렬들의 그 정신, 그 기백이 최후승리의 진군로우에 나래칠 때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승리의 만세소리 더 우렁차게 터져오르고 인민의 마음속에 로동당만세소리 더 뜨겁게 메아리친다.

인민의 심장에서 울리는 로동당만세소리, 원쑤들은 이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바로 천만의 심장에 울리는 이 로동당만세소리로 우리는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게 될것이며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첫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축포성을 우렁차게 터쳐올릴것이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승리의 계주봉마냥 우리 심장에 억세게 이어지는 항일선렬들의 이 신념의 글발은 우리에게 무엇을 새겨주고있는가.

죽을지언정 버릴수 없는 혁명신념, 그것은 바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 신념을 지닐 때 눈속에 묻혀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처럼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신념의 한생을 살수 있고 조국과 혁명을 위한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우리 원수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이 신념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시련앞에 쓰러졌다가도 백번, 천번 다시 일어나 싸우게 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의 뿌리가 이것이고 난관앞에서도 굴함없이 승리를 맞받아 나아가게 하는 기적의 힘의 원천이 이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기적의 기념비들을 우후죽순처럼 안아올린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이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 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던 패배주의자들의 한숨소리를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여지없이 쳐갈긴 황금해력사창조자들의 빛나는 위훈의 자욱들이 그것을 긍지높이 선언한다.

누구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부시며 당을 따르는 신념의 한길, 백승의 한길을 끝까지 이어가자.

당의 위력은 당원대중의 위력이다.

조선로동당원, 이는 명예도 직위도 아니다.

당의 믿음과 기대를 인생의 제일가는 재부로 간직하고 당을 따르는 길에 생명도 다 바칠 각오로 심장 불태우는 신념의 강자, 의리의 강자들이 바로 조선로동당원들이다.

로동당원들은 앞으로!

가렬한 전화의 언덕에 이 신념의 토로 높이 울리며 당원증을 피로 물들이면서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제낀 전화의 나날 당원들처럼 이 땅 모든 초소, 모든 일터에 다 있는 우리 당원들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당을 받들고 부강조국건설의 진군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때 조국이 힘과 용맹에 넘치고 당의 위력이 천백배로 강해진다.

일군들이여,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그대들의 어깨우에 오늘의 총공격전의 승패가 달려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다름아닌 우리 일군들의 심장에서부터 세차게 고동쳐야 할 최후승리의 박동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것이라면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관철한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가장 순결한 신념과 의리로 어버이장군님을 받들고 따른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는 우리 당의 미더운 전우—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백승의 진리이며 만복의 보검인 우리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길에 심장을 바치라, 온넋을 불태우라.

조선로동당은 우리모두의 어머니이며 영원한 삶의 품이다.

누구나 어머니당창건 70돐을 맞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다.

모두다 백두의 칼바람에 승리의 돛을 달고 눈부시게 비약한 아름다운 추억과 위훈의 자랑을 안고 축포가 터져오르는 10월의 광장에서 만나자!

방 성 화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은 당사업의 주선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지금 온 나라의 모든 당조직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당조직들이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당과 조국, 인민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자면 당사업에서 주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주선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의 성과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특히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해야 하는 당사업에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주선을 놓치고 부차적이며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여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당사업을 잘해나갈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은 모든 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사업의 주선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이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때문이다.

올해는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0돐이 되는 혁명적대경사의 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뜻깊은 올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중요하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확립되게 된다.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현실로 전환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발휘되여야 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이 힘있게 과시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당에서 아무리 훌륭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아도 당조직들이 그 관철에 발동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전당이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의 의지로 받드는 당,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는 당이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당이며 전투력있는 당이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실천의 구호로 삼고 당사업을 힘있게 벌려왔기때문이다. 전후시기 종파놈들의 온갖 책동을 쳐갈기며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투쟁의 갈피에도, 1970년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친 불멸의 영웅서사시에도 천만군민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자랑찬 위훈이 새겨져있다. 당에서 구상하고 결심하면 전당이 떨쳐나 단숨에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싸워온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70년력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고 크나큰 긍지가 있다.

모든 당조직들에서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뜻깊은 올해에 우리 당의 위대성과 전투적위력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그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반영되여있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드팀없는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일데 대한 문제,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때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보다 큰걸음을 내짚고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질수 있다.

오늘 당정책관철에서 발휘되고있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사회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인민군대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조건타발이나 양보를 모른다. 지난해 인민군대에서는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함께 지휘관들이 어로공들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치렬한 어로전투를 벌려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였다. 당에서 과업을 주면 오직 《알았습니다.》, 《집행하였습니다.》라는 말밖에 모르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있었기에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게 되였다.

인민군대에서처럼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관철해나가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꾸준히 집행해나가는 완강성, 자그마한 부족점도 허용하지 않고 당정책을 완전무결하게 관철하는 높은 책임성, 이것이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에서 구현해나가야 할 투쟁기풍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시킴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성과를 안고 떳떳이 들어서야 할것이다.

윤 철 희

새겨간다. —건창숙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조국해방을 위하여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크나큰 믿음, 간곡한 당부

주체101(2012)년 1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에 들리시여 부대를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으시였다.

력사의 나날들을 전하여주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진문헌들을 주의깊게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제105땅크사단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부대답게 모든 면에서 전군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다함없는 축복속에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쳐가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오름을 누를수 없었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105라는 말만 들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부대에서는 일군들과 군인들속에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부대가 어떤 영광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전군의 모범부대로서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영원한 혁명동지가 되자는 의미에서 손을 굳게 잡고 사진을 찍읍시다. …

그이의 말씀은 군인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천만뜻밖의 대국상을 당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의 첫날 찾으셔야 할 곳, 보셔야 할 일도 많고많으시건만 눈보라사나운 길을 헤치시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에 남기신 자욱자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 력사의 장거였다.

본사기자 김철혁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합니다.》 김 정 은

물확보로 찾은 1만여t의 알곡증수예비

재령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전투를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들은 물확보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1만여t의 알곡증수예비를 찾아내였다. 이것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일군들의 혁신적이며 과학적인 일본새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군책임일군들의 생각은 많았다.

사실 당의 의도를 받들고 지난해 군에서는 물확보전투를 적극 내밀었다. 온 군이 떨쳐나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2천여m의 물길을 완공하였다. 그리고 모든 물길들의 정리사업과 함께 물이 새는 구간들에 대한 진흙다짐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백개의 우물과 140여개의 굴포파기 및 보수, 110여개의 보막이공사를 비롯하여 물확보를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군책임일군들은 마음이 무거웠다. 이것만으로는 올해 군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수 없었던것이다.

책임일군들은 각 협동농장들의 포전별, 필지별략도를 놓고 지난해농사과정을 다시금 분석해보면서 올해 군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타산해보았다. 그리고 지난해 백년래의 왕가물로 수천정보의 논밭에 물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여 1만여t의 알곡을 더 생산하지 못한 사실을 돌이켜보았다. 이렇게 놓고볼 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을 내놓고도 1 000여정미의 물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물확보사업에서 거둔 일정한 성과에 만족해하면서 마음의 탕개를 늦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따져볼수록 자책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당의 뜻대로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지 못한 자신들을 돌이켜본 책임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분발해나섰다.

올해농사에 필요한 물을 100% 확보하자. 책임일군들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방도들을 찾아나갔다. 그후 군안의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모두 열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물원천을 모조리 찾아내여 10월의 대축전장을 쌀폭포로 빛내입시다.》

절절하게 울리는 책임일군의 이 말은 천백마디의 말을 대신하였고 모두의 심장을 쾅쾅 두드렸다. 일군들모두가 호응해나섰고 군안의 물원천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책임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물길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구간한구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그들은 재령강과 서강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이 강들의 물을 은파호물길로 퍼넘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어느 구간에서 물을 퍼올리는것이 합리적이겠는가?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기마련이다.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합치는 과정에 이들은 강교, 굴해, 룡교협동농장에 있는 배수양수장들을 역수양수장으로 전환시켜 재령강과 서강의 물을 은파호물길로 끌어올리면 벌방지대 논들에 안전하게 물을 댈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우물과 굴포파기를 더 진행하고 보막이공사를 동시에 밀고나가면 씨뿌리기와 모기르기에 필요한 물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였다. 이렇게만 한다면 올해에 심한 왕가물이 든다 해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어 지난해보다 1만여t의 알곡을 더 생산할수 있었다. 이 안은 모두의 전적인 찬동을 받았다.

일단 중심고리가 명백해지자 일군들은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 높은 전투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자재를 선행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부족되는 양수기생산과 발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자재를 100% 확보하고 19대의 양수기를 생산하였으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물을 풀수 있게 50여대의 발동기도 마련하였다. 물확보전투장들마다에서 사상전이 공세적으로 벌어지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앞채를 메고 달리면서 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공사장마다에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련일 혁신이 창조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수만㎥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갔다. 대중의 드높은 열의속에 공사실적이 련일 올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물확보로 1만여t의 알곡을 더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찾아쥐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는 군일군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한 좋은 경험이다.

본사기자 박 철

지방원료를 첨가제생산에 리용

사리원돼지공장에서

첨가제는 집짐승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증체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효능이 높은 첨가제를 자체의 원료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리원돼지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 문제해결에서 큰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그전보다 알곡먹이를 10% 절약하면서도 돼지의 증체률을 1.2배 높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먹이단위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수백t능력의 첨가제생산공정을 꾸려놓고 그 생산에 힘을 넣어왔다. 하지만 주요원료들이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그 량을 늘일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가를 낮출수도, 알곡먹이소비량을 줄일수도 없었다.

그때 공장일군들은 이렇게 결심하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며 우리 식으로 해나가라는것은 당의 뜻이다. 우리의 원료로 첨가제를 생산하자.

일군들은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달라붙었다.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과의 련계밑에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 과정에 좋은 경험이 창조되였다.

우선 원료의 40%를 지방에 흔한 천연자원으로 리용하도록 한것이다. 처음 첨가제를 만들었을 때까지만 하여도 천연자원을 많이 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원가가 많이 든것은 물론 생산을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없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과학자들과 함께 도안의 망간매장지들을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어느 한 군에서 망간토매장지를 찾게 되였고 망간토속에 망간이 많이 들어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후 망간토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 건조로건설과 함께 분쇄기제작 및 설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소금밭이끼에서 요드를, 석회석가루와 조가비에서 칼시움과 린을 채취하여 원료로 리용하였다.

일군들은 이렇게 만든 첨가제에 여러가지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우선 각종 털을 가성소다로 용해시킨 후 어분을 리용하여 아미노산을 보충해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집짐승들이 잘 흡수하지 못하는 광물질원소들을 아미노산에 부착시켜 집짐승들의 소화흡수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효소제의 활성을 높여 첨가제의 질을 제고한 사업을 놓고보자.

효소제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린분해효소와 여러가지 비타민들이 들어있다. 일군들은 효소제의 활성을 높여주기 위해 배양실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효소제원료의 멸균과 균배양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미생물이 잘 자랄수 있게 온도와 습도보장에 관심을 돌렸다.

자체로 만든 첨가제는 지방의 흔한 원료를 리용하니 생산을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있었다. 특히 집짐승의 먹이소화흡수률과 물질대사기능을 높일수 있었다. 또한 설사증을 비롯한 소화기질병과 구루병을 막을수 있었다.

당의 뜻대로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보람은 이렇듯 컸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리

평양메기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기신 애국유산인 평양메기공장이 조업한 때로부터 10여년이 되였다. 그 나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양어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당정책옹위전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해결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조업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양어에서 기본인 종자, 먹이, 물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 메기생산의 공업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이 제시한 높은 생산목표를 수행하자면 무엇보다 종자문제 즉 우량품종의 메기생산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했다.

첫 과제를 이렇게 정한 기술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우선 여러가지 메기품종중에서 생산성이 매우 높은 어느 한 우량품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종자고기관리를 잘하여 새끼고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다른 나라의 새끼고기생산방법에 대해 알게 된 기술자들은 그것은 우리 식이 아니라고 단호히 부정해나섰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그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기술로 새끼고기생산을 늘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게 되였다.

먹이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한 사업을 놓고보자. 공장에서는 처음에 적지 않은 량의 새끼고기먹이를 다른데서 들여왔는데 여기에 드는 자금이 간단치 않았다. 이 사실은 일군들과 기술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게 하였다. 우리 식이 제일이고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간직한 이들은 지혜를 합쳐가는 나날에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개건의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새끼고기먹이를 만들어내게 되였다.

바로 이런 때인 주체98(2009)년 가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물고기생산을 급격히 늘인데 대해 높이 평가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업적방법으로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린 이들은 먹이의 국산화실현을 위한 10여종의 설비도 자체로 만들어 질좋은 배합먹이를 생산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새끼고기생산이 늘어나는것과 함께 물속에 산소를 더 보충해주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이미 있던 설비로 그렇게 하자고보니 능력이 작았다.

기술자들은 조건이 그렇다고 하여 다른 나라의 설비를 바라보지 않았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식이라는 만능의 열쇠를 더 든든히 틀어쥔 이들은 물속풀린산소함량을 높여줄수 있는 장치를 끝내 자체로 연구도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해 12월 평양메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열어준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높은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누구나 두몫세몫씩 일감을 맡아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철

생산원가를 어떻게 낮추었는가

장자강버섯공장에서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장자강기슭에 희한하게 일떠선 장자강버섯공장에서 과학기술에 힘을 넣어 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공장에서는 금강약돌을 리용하여 쌀겨를 종전보다 50% 적게 쓰면서도 기질오염도를 훨씬 낮추고 생산을 늘이고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1t의 버섯기질을 생산하는데 200㎏의 쌀겨를 리용하였다. 공장의 생산능력이 수백t이라는것을 놓고볼 때 총기질량의 20%에 해당한 쌀겨를 정상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였다. 물론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이 원료확보사업을 힘껏 떠밀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쌀겨보장에서 크게 제기될것은 없었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원가를 최대한 줄이면서 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당의 뜻이고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어느 단위에서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있다. 문제를 이렇게 본 공장일군들은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갔다.

여기서 잘한것이 있다.

우선 자기 고장에 흔한것을 적극 리용할수 있는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한것이다. 쌀겨대신 금강약돌을 리용하고있는 사실을 놓고보자. 도의 어느 한 지구에는 금강약돌이 많이 매장되여있다. 그 금강약돌에 버섯성장에 좋은 미량원소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여있다는것을 알게 된 공장의 일군들은 즉시 생산에 받아들일 대책을 세웠다.

그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 찾아가 금강약돌리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토의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분쇄설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되여 영양효과는 쌀겨와 맞먹으면서도 멸균효과와 잡균방어력이 높은 금강약돌이 버섯생산에 적극 리용되게 되였다.

금강약돌을 리용하는데서 성분분석을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첨가량을 실정에 맞게 정한것도 경험적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강약돌첨가비률은 0.1%였다. 그런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장에서 리용하는것은 다른 고장의 품위높은 약돌에 비해 미량원소함량이 적었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금강약돌첨가비률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더 높일 계획을 세우고 애써 노력하였다. 그 보람은 컸다. 마침내 합리적인 첨가비률을 찾아내게 되였던것이다. 공장에서는 여기에 0.3%의 뇨소비료를 더 첨가하여 질소영양성분을 보충해주었다. 결과 종전보다 쌀겨리용량을 절반이나 줄여 원가를 낮추면서도 버섯생산을 정상화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을 창조적으로 해나가고있는 이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장 은 영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으로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청단군 심평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기행

행복의 열매 무르익는 산촌의 새 풍경

전변의 벅찬 모습을 펼친 맹산군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성련석회의의 사상과 정신은 참으로 위대하며 그것을 옳게 구현해나가는데 군살림살이를 잘 꾸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습니다.》

맹산이라고 하면 누구나 산이 많고 골이 깊어 두메산골이라는 생각부터 가지게 된다. 비록 외진 산촌이지만 우리 당의 은정속에 나날이 변모되여 행복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가는 맹산군을 찾아 우리는 기행의 길에 올랐다.

불멸의 그 업적 길이 전해가리

북창군을 지나 굽이굽이 수십리 령길을 오르내리느라면 수려한 산발과 깊은 골짜기가 한데 어울린 심심산골의 정서를 그대로 느낄수 있다.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산촌의 풍경도 이채로왔지만 새해농사차비로 끓어번지는 협동벌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마냥 즐겁게 하였다.

산촌의 높뛰는 숨결을 한껏 느끼며 사방으로 련련히 뻗어간 산발들을 바라보니 이곳 산골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왔다.

《우리 맹산땅에 펼쳐진 전변의 력사에는 산골군사람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동행한 일군인 채병만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읍거리 중심에 건립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앞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위대한 태양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로동당시대를 노래하며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는 맹산,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9월의 그날 멀고 험한 령길을 넘으시여 두메산골 여기 맹산땅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외진 산골의 강기슭을 오래도록 거니시며 맹산군을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킬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지금도 맹산군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기였던 주체83(1994)년 그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크나큰 은정을. 그 믿음과 사랑에 떠받들려 맹산군만이 아닌 내 나라의 어디 가나 자랑찬 어제와 오늘, 휘황한 래일이 펼쳐진것이 아니겠는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강사의 해설을 듣느라니 주체85(1996)년 또다시 맹산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되여가는 군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일군들에게 인민의 충복답게 일을 더 잘하라고 고무해주시던 력사의 그날이 되새겨졌다.

진정 맹산군에 펼쳐진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윽고 우리는 환하게 열린 읍거리에 나섰다. 길량옆에 보기 좋게 자란 살구나무들과 끝간데없이 뻗어간 드넓은 포장도로, 산뜻하게 외장재를 바른 2층, 3층짜리 살림집들과 산기슭에 그림처럼 들어앉은 아담한 문화주택들,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와 노래소리 울려나오는 학교들과 유치원, 즐비하게 늘어선 편의봉사망들이 변모된 군의 새 모습을 말해주는것만 같아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꽃피는 봄날처럼 한껏 부풀었다.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끈것은 군자체의 힘으로 번뜻하게 일떠세운 멋진 체육관과 드넓은 경기장이였다. 군안의 체육열풍이 참말로 대단하다고 군일군은 자랑담아 말하였다. 산간벽지라는 생각은 일순간에 사라지는듯 하였다.

무르익은 풍년이삭에서 근실한 농민의 구슬땀을 보듯이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과 잔디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서도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읽을수 있었다.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편 지방산업공장들

우리는 군일군과 함께 향교천기슭에 자리잡은 3중3대혁명붉은기 맹산식료공장을 찾았다. 드넓은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마치 종합식료공장에 온듯한 감을 느꼈다.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된장, 간장, 기름을 비롯한 기초식품생산공정과 과자, 사탕과 같은 당과류생산공정들이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간장, 된장생산이 지난 시기에 비해 2배이상 높아진것은 물론 장맛도 좋아 주민들의 호평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장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읍거리에서 잠간 들렸던 식료품상점의 흥성이는 기초식품매대가 방불히 안겨왔다. 금시 창고가 터져나갈것처럼 꽉 들어찬 갖가지 원료들을 보며 동행한 일군은 이 공장에 오면 뭐니뭐니해도 원료기지에 가보아야 한다면서 읍에서 한 10리 떨어진 갈골로 우리를 이끌었다. 원료기지작업반은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자체로 석회로를 돌려 밭에 낼 소석회를 생산하고 여기서 나오는 폐열로 운영하는 남새온실도 볼만 했지만 돼지, 닭, 오리 등 집짐승우리에서 나오는 거름을 비탈밭에 듬뿍듬뿍 내여 팔뚝같은 강냉이를 창자마다 가득가득 채운 모양은 저절로 칭찬이 쏟아지는 흐뭇한 정경이였다.

군살림살이를 늘이고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소리 더해가는 지방공업의 발전모습은 현대적으로 변모된 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을 돌아보면서 더 잘 알수 있었다. 종업원이 수십명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이지만 본받을만 한 점이 많은 단위였다. 몇해전 조합의 건물을 완전히 들어내고 2층짜리 생산건물을 번뜻하게 제손으로 일떠세운 이곳 일군들과 조합원들의 긍지와 보람은 남달리 컸다.

제 머리로 착상하고 제손으로 창조하여 남보다 멋있고 쓸모있는 가구를 생산하자. 이곳 조합원들은 이런 결심을 안고 하나의 가구도안을 창작하여도 누구나 좋아하는 멋진것으로 되게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었다. 조합의 여러 생산공정을 다 돌아보고 제품견본실에 들린 우리는 도시의 가구생산자들도 자기네 조합의 기술발전수준에 감탄한다는 관리위원장 리용남동무의 말을 십분 리해할수 있었다. 자체로 훌륭한 가구제품들을 척척 생산하면서 자재걱정을 모른다는 조합일군의 말속에는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활성화를 위하여 기울인 군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일본새를 엿보게 하는 그 무엇이 비껴있었다.

이어 우리가 찾은 맹산군종이공장도 다를바 없었다.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군내 학생들의 학습장과 위생종이를 생산하여 눅은 값으로 팔아주니 수요가 날로 늘어난다고 하면서 공장일군은 아직 종이의 백색도가 높지 못하여 마음쓴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자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군내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체탄광도 개발하고 세멘트생산기지도 현대적으로 꾸려놓아 고급중학교와 살림집건설도 통이 크게 벌리고 떨감문제도 자체로 해결한다는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도로와 강하천들을 정리하고 밭가운데 있던 수천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대담하게 산기슭으로 옮기고 수백정보의 새땅을 찾아내여 알곡생산을 늘이고있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두메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수천정보의 풀판을 조성하여 소, 염소, 양을 비롯한 풀먹는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읍지구와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니 사람들 누구나 자기 일터와 고향을 남다른 긍지감을 안고 끝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군당책임일군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참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지방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약동하는 군의 참모습에 감탄을 금할수 없는 자랑찬 현실이였다.

차를 타고 읍지구를 벗어나 10리가량 달려 우리는 평지리에 들어섰다.

리문화회관과 고급중학교, 상점과 식당도 번뜻하였지만 주변의 산발과 잘 어울리게 강기슭을 따라 즐비하게 일떠선 농촌문화주택들은 산촌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주고있었다.

《저 억쇠바위에 새겨진 글발을 보십시오. 군안의 인민들의 신념의 맹세가 저 글발에 다 담겨져있습니다.》

우리는 군일군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전설적영웅 김정일장군 주체92(2003).7.27》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복받은 자기 고장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갈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억년 드놀지 않을 천연바위에 그대로 새겨져있었다.

글 본사기자 명흥숙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맹산식료공장에서—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애국충정으로 빛나는 값높은 삶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함경북도혁명사적관 로동자 강봉숙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적의무이기전에 량심과 의리로 되여야 합니다.》

평범한 한 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혁명사적부문에서 일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온넋을 깡그리 바쳐온 함경북도혁명사적관 로동자 강봉숙동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처녀시절 로동현장에서 일하던중 뜻하지 않게 로동능력상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응당 사회적혜택속에 자기 몸 하나만을 돌보아도 될 그가 심혼을 다 바치며 걸어온 충정의 길에는 어떤 사연이 새겨져있는것인가.

량심이 가리킨 길

좋은 때 백날을 따르는것보다 어려운 때 하루를 따르는것이 진짜신념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시련과 난관속에서 검증된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함북일보사 인쇄공장 신문종이분공장에서는 전체 종업원들의 관심속에 한쌍의 청춘남녀의 결혼식이 있었다.

신랑은 공장에서 마음씨 무던하고 일잘하기로 소문난 공무작업반의 홍룡길동무였고 신부역시 한공장에서 일하는 일솜씨여물기로 소문난 강봉숙동무였다.

결혼상을 마주한 신랑의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였지만 행복의 미소를 짓는 신부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맺혀있었다. 한시름이 풀린듯 미소를 짓고 신랑신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강봉숙동무의 어머니 한만동녀인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이였다.

사실 한만동녀인은 작업도중에 뜻밖의 일로 한쪽손을 거의 잃은 딸을 두고 남모르는 걱정을 하여왔다.

자식이 당한 불행은 설사 그것이 작은것일지라도 부모에게는 말할수 없는 아픔으로 되는법이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새살림을 펴나가야 할 처녀가 한쪽손을 쓰지 못하게 되였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더우기 그런 처녀한테 어느 총각이 선뜻 나서랴 하는 생각에 어머니의 마음은 덜커덕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강봉숙동무는 여전히 공장일에 열성이였고 회령혁명사적관을 새로 꾸릴 때에도 용약 달려나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강봉숙동무의 집문을 두드리는 청년이 있었다.

홍룡길동무였다. 늘 얼굴에 웃음을 담고 공장의 자랑으로 떠받들리우고있는 강봉숙동무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있던 그가 그날은 결심을 품고 찾아왔던것이다.

《전 강봉숙동무와 일생을 같이할 결심입니다. 허락해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홍룡길동무의 말에 강봉숙동무의 어머니는 선듯 승낙을 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이 나서고 온 공장이 축복해주는데 어머니로서도 어쩌는수가 없었던것이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인가.)

결혼식날 강봉숙동무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리라 굳게 마음다졌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얼마나 따사롭고 은혜로운 품에 안겨사는지 다는 몰랐다.

새 가정에는 어느덧 옥동자가 태여나고 행복넘친 생활속에 날과 달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날 도의 한 일군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일군은 강봉숙동무의 어머니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봉숙동무, 기뻐하십시오. 당에서는 강증남동지의 해방전투쟁자료를 료해하고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워주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를요?》

그날 강봉숙동무는 격정의 눈물속에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가 8살때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었다. 남들이 아버지자랑을 할 때면 저도모르는 서러움에 몰래 눈물을 흘린적은 얼마였던가. 어느덧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추억마저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자신도 잊고있었던 아버지를 당에서는 잊지 않고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었던것이다.

그날 강봉숙동무는 포항광장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그때로부터 이태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접할줄 어찌 알았으랴.

마음속아픔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였다. 그것을 기화로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업적이 깃든 혁명의 붉은기가 이 땅에서 휘날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에게 있어서 우리 당은 어머니품이였고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한 어버이이시였다.

(원쑤놈들이 감히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업적을 허물어버리려고 하는 오늘 내가 설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즈음 그는 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고있었다. 물론 자기가 일하던 공장에 그냥 있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이 벌어지고있는 그 시각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는 싸움에 용약 나섰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령을 받들고 수령의 업적을 지키는것이 조국을 지키고 너와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잊지 말거라.》

꿈속에서도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당부하는것 같았다. 강봉숙동무는 드디여 심장의 대답을 찾았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85(1996)년 4월 어느날 함경북도혁명사적관으로 들어서는 한 녀인이 있었다. 강봉숙동무였다.

《저를 여기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강봉숙동무는 이렇게 자진하여 혁명사적부문에서 일하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찍어온 강봉숙동무의 삶의 자욱자욱은 말그대로 고결한 충정과 헌신으로 수놓아진 걸음걸음이였다.

심장의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처음으로 도혁명사적관에 출근한 날 강봉숙동무는 경건한 마음을 안고 사적관의 매 호실들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깃들어있는 도혁명사적관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사적자료들과 함께 도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종합적으로 전시되여있었다.

저 멀리 왕재산으로부터 마천령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높고 낮은 산발들과 공장과 농촌, 산골마을 그 어디에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어린 함북땅,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도를 찾으시고 도안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강봉숙동무의 가슴은 저도모르는 격정으로 하여 세차게 높뛰였다. 마치도 도에서 일어나는 많고많은 변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것 같았다.

(나의 심장의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을 더욱 빛내이리라.)

그의 가슴속에 이런 결심이 바위처럼 굳어졌다. 결심이 굳어질수록 그의 생각은 깊어졌다.

(하다면 나는 무엇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을 더욱 빛내이는 사업에 이바지할것인가?)

강봉숙동무가 혁명사적부문에 자진한것은 단지 반일애국렬사유자녀이기때문만은 아니였다. 남다른 집안배경으로 생색을 내자는것이 아니였다. 실지 온넋을 바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과 령도업적을 지키고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고싶어서였다.

한쪽손이 거의 없는 내가 남들과 같이 관리사업을 할수 있겠는가, 아니면 사람들앞에 나서서 강의를 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며칠밤을 새운 어느날 저녁 그의 집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철민이 아버지, 제 생각엔 지금 집에서 키우고있는 돼지마리수를 더 늘였으면 해요.》

그의 말에 남편은 무척 놀라와하였다. 그 몸으로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더 많은 돼지를 키우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집짐승을 많이 길러 종업원들의 생활에 보태고 못 한개라도 마련하여 사적관관리에 이바지하는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요.》

강봉숙동무의 말에 홍룡길동무는 말하였다.

《당신 결심이 단단히 섰는데 내 무슨 말을 하겠소. 일단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당신이 아니요.》

《아무렴, 우리 철민이 엄마가 누구라구.》

어머니도 강봉숙동무를 적극 지지해나섰다. 지난 시기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지성을 바쳐온 어머니를 바라보는 강봉숙동무에게는 저도모르게 신심이 생겼다.

그의 소행은 종업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평시엔 말도 적고 남들과 꼭같이 일하면서도 그가 집에서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안고나올 때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군 하였다.

들고나오는 후방물자가 크거나 많아서가 아니였다. 비록 소박하고 눈에 띄는 별식이 아니여도 그 하나하나에 바쳐진 그의 진정이, 그의 말없는 당부가 가슴에 사무쳐와서였다.

강봉숙동무에게 있어서 사적관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것은 모든 사업과 생활의 첫째가는 일이였다.

사적관을 관리하고 새롭게 꾸리는데서 조금이라도 걸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응당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여기였다.

때로는 불편한 몸으로 자재를 구입하느라 먼길을 다녀오고 자동차적재함에서 찬눈비를 맞으면서도 그는 모든것을 달게 여기였다.

지어 필요하다면 집재산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놓았으며 어떤 때에는 친척들에게까지 호소하여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도 자식을 가진 어머니였고 한집안의 살림살이를 맡아안은 가정의 주부였다.

그라고 왜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남편을 더 잘 내세우고싶은 생각이 없으랴만 그는 가정보다, 남편과 자식보다 먼저 자기가 선 혁명초소를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강봉숙동무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주체96(2007)년 2월초 어느날 북방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도혁명사적관을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꾸려진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는것이였다.

출장길에서 이 소식을 전해듣고 평양하늘을 우러르는 강봉숙동무의 눈가에서는 격정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사적관에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새로 꾸리던 나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한창이던 어느날 강봉숙동무는 그만 중병으로 쓰러져 도의 어느 한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의사들은 수술후 절대안정을 요구하였지만 강봉숙동무의 불같은 마음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그 몸으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며칠만이라도 더 누워계십시오.》

《아니, 사적관에서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자리에 누워있겠습니까.》

사적관을 꾸리는 사업이 순간이라도 지체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병원을 뛰쳐나오다싶이 한 그를 사적관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둘러쌌다.

아직은 병색이 짙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침상에서 오빠와 무산군에 있는 시누이에게 부탁하고 노력하여 구한 자재와 어머니와 남편의 진정이 어린 후방물자들을 안고나온 그의 모습은 사적관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큰 힘이 되였다.

겉모습은 수수해도 백옥같은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 이것이 강봉숙동무의 모습이였다.

지금까지 강봉숙동무는 많은 식료품을 해결하여 사적관종업원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면서도 각종 도색재와 고급벽지, 조명등과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 콤퓨터와 변압기를 비롯하여 80여종에 수천점의 물자들을 가정에서 마련함으로써 도혁명사적관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가정에서 준비한 많은 물자들을 기증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집에서 키운 집짐승들과 군인생활에 필요한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무도영웅방어대를 비롯한 인민군초소들에 보내주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사경에 처한 군인에게 자기의 피부를 이식해주고 많은 보약을 마련해주어 그가 새로운 혁명초소에서 일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강봉숙동무는 참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진정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로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줄 아는 강봉숙동무야말로 시대가 바라는 참된 애국자의 전형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근 20년간 혁명사적부문에서 일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강봉숙동무의 소행자료를 료해하시고 그를 선군시대공로자로 높이 내세우도록 하여주시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 도처에 남새온실들이 꾸려져 인민들이 그 덕을 본다 *

영양가높은 남새품종들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 큰 힘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화성온실남새농장에서—

—단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남새온실농장에서—

—온성군온실남새생산사업소에서—

—강계시 은정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정순애, 김광혁, 한광명 찍음

인민사랑을 노래하는 또 하나의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

강계시에 새로 일떠선 인풍원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강계시의 장자강기슭에 인풍원이 새로 일떠서 개원하였다.

인풍루에서 내려다보면 조선식합각지붕을 건듯 이고 들어앉은 인풍원의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다.

1만 2천㎡의 부지면적을 가진 인풍원은 2층, 3층건물이 나란히 앉아있다.

청기와를 얹은 합각지붕아래로대와 해빛에 번쩍이는 창문들, 화대들, 곱게 두른 울타리며 야외휴식터, 주차장 등이 넓고 시원하게 뻗은 강계다리와 조화를 이루며 민족적형식과 현대적미감을 짙게 결합시켜주고있다.

인풍원의 내부는 또 얼마나 황홀한가.

천정의 무리등이 현란한 빛을 뿌리는 넓은 홀에 들어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리도 사랑하시던 외중폭포를 형상한 벽화가 한눈에 안겨든다.

해방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찾으시였던 외중폭포, 폭포를 다시 찾으신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여기를 인민들이 즐겨찾는 명승지로 잘 꾸려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황홀경에 심취되여 눈길을 떼지 못해하는 우리에게 지배인 리향숙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풍원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입니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보면 더 잘 알겠지만 인민들에게 돌려지는 어머니당의 사랑과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것인가를 뜨겁게 절감하게 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먼저 1층의 실내수영장에 들어섰다.

면적이 990여㎡나 되는 드넓은 실내수영장은 황홀하였다.

푸른 파도 출렁이고 흰 갈매기 날아예는 바다를 형상한 대형벽화, 3단조약대와 수영장, 수영경기를 한눈에 볼수 있는 2층의 100여개에 달하는 관람석, 여러개의 덕수대, 맑은 물 쉬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어른들을 위한 물놀이장, 미끄럼대를 갖춘 어린이물놀이장, 대자연의 절벽을 통채로 옮겨온듯 한 인공폭포, 바다먼 이 고장의 남녀로소가 웃고떠들며 좋아하는 드넓은 실내수영장에 깃들어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주체97(2008)년 7월 어느날이였다.

한여름의 찌는듯 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강도를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강계시에 은덕원이 건설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하루빨리 완공할수 있게 많은 량의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주체102(2013)년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장식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이 어리여있다.

습식, 건식한증칸이 달린 목욕탕들도 희한하다. 한겨울 창밖의 온도는 령하 25℃를 오르내렸지만 뜨거운 김이 서리는 목욕탕들의 온도는 따뜻한 여름을 방불케 한다.

1층에는 빨래실도 있었다. 지배인은 우리에게 여기서는 손님들의 빨래감을 받아 깨끗이 빨아줄뿐아니라 영예군인, 로병가정들을 위해 주문봉사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자그마한 옷장열쇠로부터 건발기, 의자와 거울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봉사시설을 갖춘 미용실, 안마실, 리발실과 운동실, 탁구장을 돌아보고 2층의 식당에 들렸을 때였다.

봉사일군인 리선녀동무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떠받들려 일떠서는 은덕원건설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중앙의 유능한 설계집단을 파견해주시고 지난해에는 여러차례나 형성안을 보아주시며 내부마감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잘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은정속에 인풍원에는 추운 겨울에도 실내수영장의 물온도를 항상 30℃로 보장할수 있는 지열에 의한 난방설비가 훌륭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어찌 이뿐이랴.

현대적인 설비들과 이채로운 상적으로 공급받고있는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오늘은 이처럼 훌륭한 인풍원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니 정말 그 사랑, 그 은덕에 어떻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의 심정만이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정든 고장에서 사는 자강땅인민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자강땅인민들 누구나가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지난해 12월 자강땅에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게 될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 대중봉사기지가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식당의 갖가지 료리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어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한 닭알, 닭고기, 오리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기에 원자재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만난 강계시 신문동 11인민반에서 사는 올해 70살인 리금석할머니는 인풍원에 찾아오니 10년은 젊어지는것 같다고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고기와 알을 매달 정 그 이름을 《인풍원》으로 부르도록 해주시고 개원식을 의의있게 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봉사일군인 김창조동무는 우리에게 개원한지 며칠사이에만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수는 수천명을 헤아린다고 하면서 두툼한 책을 내놓았다. 인풍원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격정에 대하여 쓴 반영들이 적혀있는 책이였다.

페지마다에는 자강땅인민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훌륭한 인풍원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고마움이 그대로 기록되여있었다.

인풍원을 돌아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속에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자강땅인민들의 행복넘친 이 모습을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에 우리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진정 인풍원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간도시의 장자강반에 일떠세워주신 자강땅인민들을 위한 사랑의 결정체였다.

인풍원에서 울리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는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찬가로 장자강반에 끝없이 메아리치리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이곳을 나섰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총공격전에로 부르는 경제선동활동 활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힘있게 울려퍼지는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는 조국해방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예술인들이 광범한 대중을 총공격전에로 떠미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도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형식의 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마다에 새겨진 깊은 뜻을 잘 알고 작품창작방향을 옳게 정하여 모든 작품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청진강재공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화선식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새해 첫달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선동시, 재담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을 창작하는것과 함께 예술적기량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경제선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있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새해 첫전투에 떨쳐나선 도안의 중요단위들에 나가 경제선동을 특색있게 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해 첫달계획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도출판물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도안의 주요단위들에 나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담겨진 사상과 정신을 해설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과 함께 우리 당의 위대성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은 시대의 벅찬 흐름에 몸을 잠그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다양한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생산현장들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를 비롯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여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이날 작가, 예술인들은 방송선전차들을 앞세우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경제선동을 화선식으로 들이대며 첫 출근길에 오른 공장종업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어 온 공장에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였다.

신의주방직공장에서 첫 경제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린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과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은 년초부터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어 대중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을 들이대는 동시에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작가들은 로동당시대의 벅찬 현실을 구가하는 시작품들과 소설, 실화 등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불꽃튀는 창작전투를 벌리며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작가들은 신의주방직공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여러 단위들에서 경제선동과 창작활동을 벌릴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의 창작,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특색있고 참신한 무대작품들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신의주방직공장과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이 진행하는 참신한 경제선동활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심장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평안북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평안북도작가동맹위원회와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4일 신의주방직공장에 달려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높이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위훈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이날 작가, 예술인들은 방송선전차들을 앞세우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경제선동을 화선식으로 들이대며 첫 출근길에 오른 공장종업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어 온 공장에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였다.

신의주방직공장에서 첫 경제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린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과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은 년초부터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어 대중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을 들이대는 동시에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작가들은 로동당시대의 벅찬 현실을 구가하는 시작품들과 소설, 실화 등 여러가지 형식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불꽃튀는 창작전투를 벌리며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작가들은 신의주방직공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여러 단위들에서 경제선동과 창작활동을 벌릴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의 창작,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특색있고 참신한 무대작품들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신의주방직공장과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이 진행하는 참신한 경제선동활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심장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사회주의농촌을 적극 지원

◎중소농기구전시회 진행◎

평안남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얼마전 평성시에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급기관, 기업소들에서 품들여 준비한 중소농기구전시회가 진행되였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사에 절실히 필요한 중소농기구들을 협동농장들에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위원회 해당 부서의 일군들은 1차 중소농기구전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고 여기에 모든 도급기관, 기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전시회에는 삽, 맞들이, 호미, 낫을 비롯한 소농기구들과 농기계수리공구 등 11종에 1만 8 500여점의 중소농기구가 전시되였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청년동맹위원회,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탐사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 기업소들에서 성의있게 준비한 중소농기구들을 내놓았다.

중소농기구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도의 책임일군들은 많은 단위들에서 중소농기구를 성의있게 마련하였다고, 이 사업을 앞으로 중도반단하지 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후 도급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성의있게 마련한 중소농기구들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과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 보내주었다.

중소농기구들을 넘겨받은 협동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은 새해농사차비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특파기자 리혁철

황해북도에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얼마전 사리원시에서는 도급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성의있게 마련한 중소농기구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18종에 2만여점의 중소농기구들이 전시되였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전시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적극 이바지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전시회에서는 도농촌경리위원회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농촌지원사업에는 자신들이 마땅히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떨쳐나 많은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였다.

도인민위원회의 모든 부서들과 산하단위들에서도 삽과 호미, 물초롱을 비롯한 중소농기구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전시회에 내놓았다.

올해 농업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드높은 열의밑에 도무역관리국과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의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이번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였다.

도급기관들만이 아닌 도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성의껏 마련한 많은 중소농기구들을 전시회에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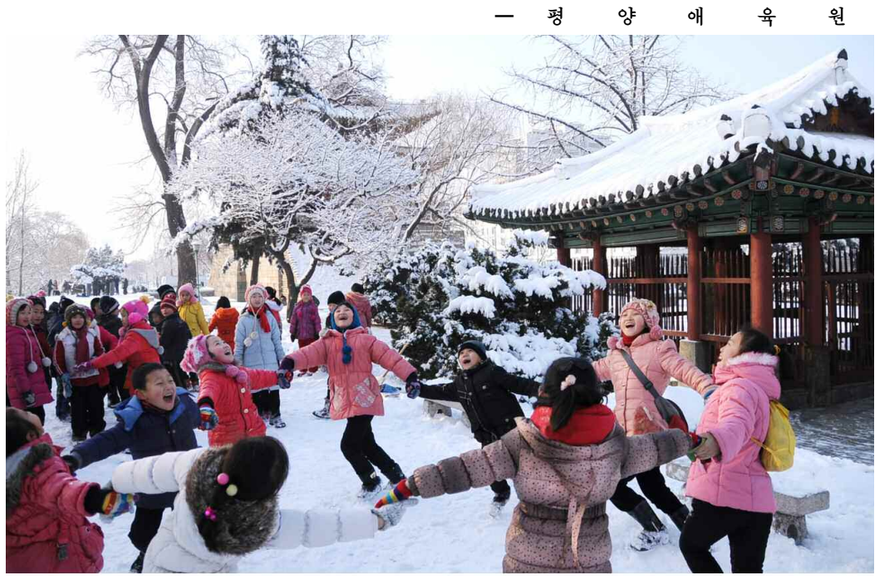
전시회를 마친 도에서는 출품된 많은 중소농기구들을 미루벌의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중소농기구를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은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지원자들의 기대에 보답할 열의에 넘쳐 새해농사차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 평양애육원에서 —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 대동문에서 —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아지니 온 나라가 밝아진다

아이들이 뛰논다. 아이들이 웃고있다.

만시름을 잊고, 온 세상이 환하게.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금시라도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뜻깊은 새해의 첫아침에 자기들의 행복의 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고 너무 좋아 발을 동동 구르며 한껏 웃음지었던 우리 원아들이다. 아버지원수님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가슴가득 안고 좋아라 손벽치며 행복을 노래했던 우리 아이들이다.

황홀한 은빛세계 펼쳐진 행복의 락원에서 한점 그늘없이 뛰노는 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느라니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아이들의 저 밝은 모습, 행복의 웃음을 과연 누가 안겨주시고 지켜주시는가.

우리 원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구김살없이 행복하게 키우시려는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가시는 곳, 찾으시는 일터마다에서 후대들을 위해 마음쓰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이 땅의 꽃봉오리들가운데는 단 한명도 그늘진 아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이 땅의 아이들모두가 한모습으로 밝게 웃을 때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모습이 더 밝고 창창해진다는것이 우리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세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다심한 그 손길속에 이 땅에선 어딜 가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리고 행복의 노래소리 높다.

동해명승 송도원에서도, 스키바람 신나는 마식령에서도, 수도에서부터 심심산골에 이르기까지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사회주의의 따사로운 해빛을 받으며 우리의 해바라기들이 만시름놓고 밝게 웃는다, 그 웃음소리 온 나라에 차넘친다.

이 땅의 아이들아, 더 밝게, 더 활짝 웃어라.

너희들이 웃으면 온 나라가 밝아진다. 너희들이 웃으면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단다!

본사기자 오은별

력사를 외곡하면 망한다

뻔뻔스러운 력사외곡풍조가 일본을 어지럽히고있다. 최근 일본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교과서들에서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허용하였다. 결과 현대사회교과서와 정치경제교과서들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련행》이라는 문구가 전부 사라졌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더러운 침략력사와 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고 악을 쓰는 일본특유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태이다.

일본의 과거범죄 특히 성노예범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범죄로서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한두명도 아닌 수십만명에 달하는 녀성들을 짐승사냥하듯 랍치하여 성노리개로 유린하다가 전장에서 무참히 학살해버린 일제의 야수적만행에 대해서는 이미 생존자들의 증언과 수많은 문서들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그 력사적진실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력사교과서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일본이 과거의 피비린내나는 침략력사를 옳바로 인식하고 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또 옳은 력사관으로 새 세대들을 교육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척도로 된다.

그러나 일본의 극우익세력은 사실그대로의 력사를 가르쳐야 할 교육의 신성한 리념마저 짓밟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력사관과 복수주의를 주입시키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력사외곡에 이골이 난 정신병자들, 수치감도 느낄줄 모르는 도덕적패륜아들의 집합체가 일본정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피비린 범죄력사를 감추어보려고 치졸하게 놀아댄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적지 않은 교과서들에서 저들의 과거범죄와 관련한 내용들을 외곡, 수정하거나 완전히 지워버리는 망동을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강행하여왔다.

일본은 국내에서 력사부정에 기승을 부리다 못해 이제 와서는 다른 나라들의 교과서에 서술되여있는 저들의 과거범죄사실까지 시비질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일본외무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시와 그 부근의 공립고등학교들에서 사용되고있는 세계사교과서들의 내용이 《력사적사실과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수정을 미국에 공공연히 요구한것이 바로 얼마전에 있은 일이다.

더욱 엄중한것은 력사외곡행위가 일본당국의 적극적인 지지비호밑에 은폐, 축소의 범위를 벗어나 이제는 전면외곡, 전면부정으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실례로 일본은 과거 일제의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해방전쟁》, 《문명》,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로 표현을 바꾸어놓았는가 하면 수백만명의 조선청장년들이 강제련행된것을 《자원》적인 행동으로 묘사하였다. 지어 일본의 한 력사교과서에는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저들의 대조선침략책동에 미쳐날뛰였던 이또 히로부미(일명 이등박문)가 조선옷을 입고 찍은 사진밑에 우리 나라에 대해 강한 친근감을 가지고있었다는 설명문까지 뻐젓이 달았다.

참으로 검은것도 희다고 우겨대는 파렴치한 일본사무라이후예들만이 할수 있는 너절한 행위이다.

일본에는 일제의 과거침략행위를 극구 미화분식하고 합리화한 력사교과서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외곡과 날조로 얼룩진 력사교과서들이 10년전에 비해 무려 10배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일본의 교육을 책임진 문부과학성자체가 과거침략력사를 외곡서술하도록 앞장에서 부추기고있다.

오늘 일본에서 새 세대들에게 거꾸로된 력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일대 선풍이 일고있는것은 우경화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의 정치풍조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일본정계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정의의 심판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군국주의망언들이 거리낌없이 쏟아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일본은 과연 언제까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력사외곡에 매여달리겠는가.

올해는 과거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세계는 지난 세기 침략전쟁과 군사적강점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이 살륙과 파괴, 략탈로 얼룩진 범죄력사를 심각히 돌이켜보고 그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배상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태도는 그와 정반대이다. 오히려 과거력사를 뒤집어엎기 위한 행위들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인류와 정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아마 일본은 거짓말도 백번 하면 진실로 된다는 궤변을 곧이 믿는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력사의 흑막속에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희미해지는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가슴에 맺힌 일제에 대한 원한은 절대로 가셔지지 않을것이다.

일본이 력사외곡에 매여달릴수록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국제적고립뿐이다.

력사를 부정하는것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자멸행위나 다를바 없다.

한때 일본의 언론계에 《력사의 진실을 교과서에 실어달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파문을 일으켰다.

기사에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교과서에 일본의 침략행위도 사실그대로 실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씌여져있었다.

《력사의 진실을 알려달라.》, 새 세대들의 이 웨침은 죄많은 과거를 숨기고 또다시 자기들을 침략전쟁의 죽음터에 내몰려고 하는 일본당국자들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절규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새 세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력사의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옳바른 력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바른길을 걸을수 없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며 결국은 나라의 전도가 막혀버린다.

지나온 력사가 후세에 가르치는 피의 교훈을 일본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전 영 희

조선의 창창한 앞날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어버이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정치에 진보적인류가 경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웅장하게 일떠선 병원의 황홀함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최신의료설비들뿐아니라 여러 치료실들과 놀이장 등 동심에 맞게 완벽하게 꾸려진 이곳은 세상에 자랑할만 한 어린이보건기지이다. 병원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아이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사랑의 화원속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만을 누리며 언제나 웃음과 랑만에 넘쳐있을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기슭에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국제사회의 각별한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야영소에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모든것이 야영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것이다. 둘째로, 다른 나라들같으면 백만장자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훌륭한 곳에 로동자, 농민, 탄부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 지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참으로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이다.》

영국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에 그 나라의 미래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외국의 벗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찬란한 조선의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라오스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조선에서는 민족의 장래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재능을 꽃피우며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래일을 보았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빼루위원회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매한 풍모에 세계가 감동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의 어린이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후비대로 자라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몽골태권도협회 터그쓰 에르조리그구락부 책임자는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자애로운 령도자의 깊은 관심과 옳바른 교육정책,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속에 자라나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정말 부럽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라고 격찬하였다.

김 국 철

진보적인류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보검

지역기구와 인디아인사들 공동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쉬 굽따와 서기장 무케쉬 샤르마, 인디아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싸드나 하리쉬,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인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 에쓰.피. 파타크가 13일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신년사에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변함없이 고수할 확고한 립장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보검으로 된다.

김정은각하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매개 나라가 힘을 키워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사실을 놓고보아도 미국이 간섭한 나라들에서는 전쟁을 막을수 없었으며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참혹한 파괴와 희생, 피난민들과 내부분쟁들만 산생되였다.

오늘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조선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통일을 바란다면 이 뜨거운 호소에 응해나서야 할것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인 우리들은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를 적극 지지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모략으로부터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사랑과 정으로 수놓아진 선군령장의 현지시찰

여러 나라 신문, 방송 특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하였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표제밑에 《군부대현지지도》, 《적들의 기도를 짓부시며》 등 제목의 글들을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는 가장 출중한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력력히 보았다고 하면서 군력을 철통같이 다져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완벽하게 지켜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서술하였다.

또한 세계는 병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뜨거운 동지애에 기초하여 전군을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부대로 다지시는 걸출한 최고사령관의 모습, 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조국수호뿐아니라 경제건설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이끄시는 희세의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신문은 사랑과 정으로 수놓아진 선군령장의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상세히 전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메디아》는 《세계가 본 김정은최고사령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천출위인께서 지니신 령장으로서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는 앞으로도 막강한 군력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캄보쟈 에프엠 90.5방송도 가장 뛰여난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칭송하였다.

필리삐 뉴씨 모잠비끄대통령으로 취임

모잠비끄에서 필리삐 뉴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취임식이 15일 수도 마뿌또의 독립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해 투쟁할것을 강조

메히꼬대통령 엔리께 뻬냐 니에또가 2015년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한 신년사에서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해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새해는 모두가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사회적정의를 실현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후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메히꼬를 정의와 평화로 특징지을수 있는 나라로 건설해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전염병방지투쟁에서 국제적협조 호소

나이제리아외무상 아미누 왈리가 8일 한 회의에서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에볼라비루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화하며 국제공동체가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1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고립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동반자들과 다방면적으로 협력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수법으로 로씨야를 고립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외무성 부상 이고리 모르굴로브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그릇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이 유럽에 통일적인 안전보장체계를 세우며 호상 평등한 협조관계를 형성할데 대한 로씨야의 제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나토를 동쪽으로 계속 확대하는 한편 《색갈혁명》과 《민주주의수출》, 무력간섭에 매여달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로씨야는 국제법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만 서방과 대화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란외무성 부상이 8일 한 외교석상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자기 나라의 립장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실현에 대한 지지는 이란의 대외정책에서 우선적인 방향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란정부와 인민은 유태복고주의정권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 팔레스티나정부 대변인이 14일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티나에 대한 자금동결조치를 취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팔레스티나정부는 모든 아랍나라들과 국제공동체와 손잡고 이스라엘의 비법적인 행위들을 끝장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5일 이 나라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57만 3 46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4 113명이 목숨을 잃고 70만 9 989명이 부상당하였다고 밝혔다.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 확대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7일현재 에볼라비루스감염자수는 2만 747명으로 늘어나고 사망자수는 8 235명으로 증대되였다.

피해가 가장 심한 시에라레온에서 사망자수와 감염자수는 각각 2 943명, 9 780명에 달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애국전통을 계승해나가는 로씨야

오늘날 로씨야가 처한 국제적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우크라이나사태를 구실로 벌어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의 반로씨야제재소동과 로씨야를 겨냥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 신나치즘의 대두 등 광란적인 반로씨야책동들이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있다.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시하며 로씨야를 지켜보고있다. 하지만 로씨야는 퇴보가 아니라 전진하고있다.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률이 여느때없이 높아지고있는 속에 사회적안정과 평온이 유지되고있으며 경제적장성이 이룩되고있다.

로씨야련방 사회원의 한 성원은 현재 로씨야사회는 3가지 가치관즉 애국주의, 정의, 민족의 운명에 대한 자각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단합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으며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로 이어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외신들도 로씨야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에 대해 전하면서 이것은 이 나라 인민들의 애국주의가 가져온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지 않고서는 국가가 존재할수 없으며 안으로부터 쉽게 붕괴될수 있다는것이 이 나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다. 이런데로부터 최근 로씨야정부는 모든 사업을 인민들의 애국주의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데로 지향시키고있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애국주의교양이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되여야 한다고 확신하고있는 뿌찐대통령은 인권리사회성원들, 신소처리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들에서 다시 애국주의교양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에서는 사회적으로 다민족적인 로씨야문학의 전통과 력사에 대한 긍지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올해가 《문학의 해》로 선포되고 국가문화정책의 기본에 관한 대통령정령이 발표되였다.

문학은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수단의 하나이다. 로씨야에서는 뿌슈낀, 똘스또이를 비롯한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많이 배출되였으며 세계에 자랑할만 한 문학유산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조국에 대한 사랑, 헌신적복무정신 등을 주제로 한 이전 쏘련시기의 문학작품들은 오늘도 로씨야인민들의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1970년대에 창작된 어느 한 영화는 당시 수많은 청년들을 조국보위의 길로 이끌었으며 《조국수호라는 직업도 있지요.》라는 영화의 대사는 오늘도 사람들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로씨야에서는 사회의 단합과 단결로 애국주의감정을 승화시키도록 하고있다.

뿌찐대통령은 여러 기회에 로씨야인민들이 나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단결을 강화하여 참다운 공민적관심과 동고동락, 애국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데 대해 평가하였다. 안전기관일군절경축모임에서 대통령은 그 누구도 로씨야를 놀래우거나 고립, 억제할수 없을것이며 그러한 시도는 언제 한번 실현된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라의 안전을 지킨 안전기관일군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기관안의 모든 일군들이 조국수호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인민통일의 날에 즈음하여 모스크바중심부에서 수만명의 행진이 진행되였다. 행진참가자들의 머리우에서는 당, 지역, 사회단체들의 기발들이 나붓겼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다》, 《우리는 많지만 조국은 하나이다》, 《파시즘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있었다.

로씨야정치학자들은 이날의 행진으로 로씨야인민들이 외세의 압력앞에서 단결을 과시하였다고 평하고있다.

뿌찐대통령은 올해신년연설에서 로씨야인민들의 단결과 련대, 진리와 존엄, 공정성과 조국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 나라의 리익을 수호하고 승리의 나날에나 시련의 나날에나 변심없이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통이 큰 계획들을 과감하게 실현하려는 변함없는 각오에 사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새해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로씨야는 공동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각자가 얼마나 실속있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노력하는가 하는데 따라 성공이 좌우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애국주의정신으로 싸워이긴 전통을 영원히 계승해나가려는 로씨야정부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본사기자 박송영

중앙정보국의 수감자학대만행에 항의하는 미국인들

심각한 실업위기

미국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의 후과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실업자로 전락되여 거리를 헤매고있다.

9일 미로동성이 밝힌데 의하면 지난해 12월에 전국적인 장기실업자수가 280만명에 달하였다 한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실업자수가 2 442만명에 달하였다.

7일 동맹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아메리카신사가 받은 반미세례

악의 원흉으로 악명을 떨치는 미국에 또 하나의 꼬리표가 붙었다.

인간불고기를 먹는 살인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식인종을 련상시키는 악명이 미국의 대명사로 국제사회에 급속히 파급되고있다.

계기가 있었다. 모리따니주재 미국대사관이 게재한 한장의 사진이 그 발단이였다. 여기에는 미국대사 안드리가 수도 누악쇼뜨의 대중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사진은 미국대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가게 된다, 이에 대한 당신들의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글까지 받쳐 게재되였다.

모름지기 미국대사관은 자기들이 이슬람교국가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멋》이라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런 놀음을 벌렸을것이다. 하많은 식당중에서 부디 가장 빈곤한 지역에 위치한 식당을 선정한것이나 모리따니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것 등은 제작자들이 선전물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적지 않게 품을 들였다는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마른하늘에 벼락치는 일이 터졌다. 미국의 영상개선을 위해 마련한 선전물이 이슬람교세계에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일으킨것이다.

작가 아흐마드는 안드리대사가 구운고기를 먹는 사진이나 게재한다고 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수리아, 팔레스티나, 소말리아 등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륙한 범행을 감출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현재 미국인들의 식탁에 오르는것은 짐승고기가 아니라 사람고기이다, 언제면 미국정부는 연약한 나라와 민족들을 먹이감으로 삼키는 피비린 력사와 작별할수 있겠는가라고 신랄히 야유하였다.

한 사회정치활동가는 침략과 전쟁을 업으로 하는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우리 이슬람교형제들을 도륙낸것처럼 모리따니인들의 고기를 먹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소하였다. 이렇게 타오른 반미열풍은 삽시에 아랍세계를 휩쓸고있다. 미국을 인간불고기를 먹는 살인마로 락인하며 미국정부가 이슬람교도들을 도륙하는 류혈참극을 끝장낼데 대한 국제적목소리가 시간이 감에 따라 거세여지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는 법이다. 미국이 민심의 지탄속에 새해벽두부터 개몰리듯 하는것은 마땅하다.

미국의 《반테로전》이 이슬람교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현대판《십자군원정》이라는데 대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9.11사건이후 침략적인 《반테로전》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슬람교와의 이데올로기전쟁》이라고 공포하였다. 이슬람교문화파괴와 이슬람교나라들의 제도전복을 위해 미제는 이슬람교를 모독하고 짓밟는 망동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파키스탄, 수리아에로까지 확대되고있는 《반테로전》이 얼마나 많은 이슬람교도들의 목숨을 앗아갔는가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피비린내나는 살륙전속에 미군이 보여준 야수적기질은 지금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이는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 알겠는가. 나는 총포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좋다.

이전 이라크강점 미해병대 제1사단 기지장이란자가 뇌까린 말이다. 그런가하면 죠슈아 벨라일이라고 하는 미해병대놈은 총에 맞아 두눈사이에서 피가 뿜어져나오는 이라크소녀의 참상앞에서 너럴웃음을 터치다 못해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까지 지어불렀다. 강점지역 주민들을 살해하고는 인체의 일부분을 《전리품》으로 간수하고있는 미제침략군병사들의 취미는 또 얼마나 렵기적이며 말세기적인가. 일반적으로 살인범들은 범행을 저지르고는 그 증거물을 없애는데 신경을 쓰는것이 통례이다. 하지만 미제침략군병사들은 사람잡이를 일삼고도 그것을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며 죽은 사람의 머리뼈와 손가락뼈, 발뼈 등을 《기념품》으로 간수하고있다. 하긴 원주민인 인디안사냥작전을 벌려 거의 모두를 멸족시키고 그 피거름우에 솟아난 미국에서 나서 자랐고 또 입대 첫시작부터 《무자비하고 능숙한 살인자로 되여야 한다.》는 살인기질,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미군이고 보면 그리 놀라운것도 아니다.

인권유린을 유흥으로 삼는 미국의 피비린내나는 행적은 비단 《반테로전》의 전장에서만 찾게 되는것이 아니다. 에볼라비루스의 산지로서 현시기 서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이 겪는 참상은 과연 누구때문에 빚어진것인가.

전 미국집권자 레간의 보좌관이였던 로버츠는 미국이 생물전쟁을 목적으로 서아프리카나라들에 설치한 생물무기연구소들에서 이 비루스의 원종을 만들어냈다고 까밝혔다. 리베리아의 대학교수 씨럴 브로데릭크는 2014년 기네와 시에라레온에서 에볼라비루스가 전파되기 몇주일전에 미국방성이 1억 4 000만US$를 탕진하면서 이 비루스와 관련한 생체실험을 진행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는 시에라레온의 케네마에 생물테로를 가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과학과 공업이 뒤떨어진 아프리카나라들이 미국의 생물무기시험장으로 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렇다. 에볼라비루스는 결코 서아프리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것이 아니다. 벌써 수십년전에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위험천만한 생물무기연구를 다그쳐왔다. 그 과정에 만들어진 살인적인 비루스의 하나가 에볼라비루스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미국은 이 비루스를 만들어냈을뿐아니라 그것을 류포시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흉악무도한 살인범이다. 지난 5일까지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네에서만도 2만 656명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되였으며 사망자수는 8 153명에 달하였다.

저들의 침략야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의 피를 즙처럼 마셔대고 전인류를 노예화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미국이야말로 인간살륙의 원흉, 인권유린의 왕초이다.

이런 미국의 외교관들이 신사복을 차려입고 아프리카의 빈민지대들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구린내나는 몸뚱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앞장에서 집행하는 넥타이맨 침략의 척후병들이기때문이다. 짐승고기를 먹는 아메리카신사의 사진을 두고 국제사회가 인간불고기를 먹는 살인마라고 단죄해나선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침략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와 인권유린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영상을 개선할수 있게 하는 진짜처방이다.

본사기자 배금희

ㄱ-51010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